

글보기

제목	한총련의 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		
글쓴이	illhyhl (연세인)	날짜	2003-02-19 21:08

한총련의 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에서는 '반디 새내기'라는 제목으로 신문을 발행 하였습니다. 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 기간에 맞춰 발행된 이 신문에서는 '알려 지지 않은 미군 범죄' 중의 하나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 는 방식은 윤금이씨가 죽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장면의 처참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단지 전라의 상태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만을 소개함으로써 희생자였던 윤금이씨가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받았 던 고통과 비참하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이미지를 통한 감정적 분노 유발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영역에서 배제 되어 있었던 기지촌과 그곳의 여성들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방식으 로 이루어진 인식 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죽음과 죽은 여성의 몸에는 여성으로서 받았던 고통의 기억보다는 인위적으로 부여된 의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군 철수와 반미 운동의 과정에 서 여성의 처참한 살해 장면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족적 분노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 여성의 죽음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공개적인 매체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윤금이씨의 사진이 미군 범죄에 대한 민족의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용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존재가 배제되고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 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금이씨가 살해당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지촌 성매매 여성이 겪는 피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여성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 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한총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을 발행하고 죽은 윤금이씨의 사진을 사용한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2002.2.19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리, 여성자치언론 두입술, 15대 총여학 생회,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여성주의자 공동체 beyond

이전글	우리 학교 학생이면..고학번이면 더 좋구여
다음글	고인을 욕되게 한 한총련보다도..

관련글 전체보기	답변	글쓰기	목록
----------	----	-----	----